

## 위암환자에서 표준화된 수술 및 수술 전후 처치의 효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노성훈, 형우진, 이준호, 최승호, 민진식

(배경) 최근의 위암환자의 예후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이전까지의 위암의 수술과 수술 전후의 처치에 이용되는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위암 수술에서 비위관의 삽입이나 배액관의 삽입은 통상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수술 전후의 처치 또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목적) 본 연구는 연세의대 외과학교실에서 한 명의 집도의가 수술을 시행한 위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연구들에서의 표준화된 수술과 수술 전후의 처치의 효과를 후향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3월부터 6월까지의 비위관 삽입의 의의에 대한 전향적 연구와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의 배액관 삽입에 대한 전향적 연구에 포함된 총 28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중 배액관 삽입시의 170명의 환자에서는 비위관의 삽입없이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복부팽만 구토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 후 2일째 저녁부터 물을 먹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환자에서 동일한 방법의 수술과 수술 전후 처치를 시행하였다.

(결과) 수술 전 처치는 모든 환자에서 blowing bottle exercise를 입원 후부터 시행하고 장준비는 관장을 하지않고 하제를 이용하였고 마취 전에 모든 환자에서 antiembolic stocking을 착용시켰고 경막외 혹은 경정맥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사용하였다. 수술중의 시야확보를 위하여 비위관을 삽입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19 G 바늘을 이용하여 위와 대장을 감압하였다. 수술은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조직박리와 D2 이상의 림프절 절제를 시행하였다. 전향적 연구 결과에 따라 2001년 7월부터는 비위관 및 배액관의 사용없이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수술 후의 통증조절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이용하였고 수술 후 운동은 수술 후 2일째부터 시작하고 수술 후 2일째 저녁부터 식이를 시작하였다. 표준화된 수술 및 수술 전후의 처치로 200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술받고 퇴원한 환자 44명의 평균 수술 후 재원일수는 9.1일로 2000년3월의 10.3일에 비해 단축되었다.

(결론) 위암환자에서의 표준화된 수술과 수술 전후의 처치의 적용은 수술 후 회복기간의 감소로 재원일수의 감소를 가져다 주어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